

제10회 신행수기 입상작
특별상(신수회 회장상)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 (상)

민지오 (대구시 남구 이천동)

오랜만에 고3인 막내 성모가 온다기에 푸줏간을 들렀다. 무심코 주인아주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미국대통령이 재선이 되었으니 앞으로..."
나도 모르게 말을 곁었다.
"무슨말씀이세요? 미국에 선거 있었습니까?"
"네, 어제요."
"어머! 난 몰랐네. 아주머니, 어제 신문 보셨으면 보여주시겠어요?"

근 7-8년을 TV와 신문을 보지 않고 오직 불교에만 매달려 있었던 난 미국 대통령 선거일도 몰랐었다는 부끄러움에 신문매체에 새삼스런 관심을 갖게 됐다. 여태껏 어떤 신문이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그다음날 공양간에서 낱자 지난 신문을 들춰보고 있었으니 말이다.

순간 시선을 멈추게 한 현대불교신문의 신행수기모집 공고문.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고 뭔가를 내놓을만한 자신도 없었기에 간혹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도 흘려버렸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마음이 동해졌다.

12년 전인 1993년 4월 30일 새벽 3시가 지나서였다 이상한 소리에 놀라 아이들 방으로 가보니 큰 딸 혜선이가 경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 나에게는 1남 2녀가 있었다. 13살인 혜선은 6살 때부터 1년에 한번 정도 나를 놀라게 했다.

혜선은 이번엔 몇 시간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원거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아이들 아빠가 도착하여 병원에 옮길 때는 많은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

부산 모병원에 입원하여 MRI촬영 등이 이어졌다. 그날부터 약 20일간, 의사의 위급하다는 소리와 함께 6-7번을 대형 산소호흡기가 아이 옆을 지킬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엄마, 이 아이 이렇게 혼수상태로 있어도 좋으니 제발 내 곁에 있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

20일이 지나자 한방에 있던 환자 가족들 간에는 농담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혜선은 엄마가 와서 울기만 하면 정신이 드는

데 뭐"였다.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는 말이기도 했다. 그 상황에서 애 아빠와의 사이는 아이가 쓰러지기 전 "이혼하자"는 말이 오갈 단계까지 갔을 정도로 나빴다.
한 달이 지나자 병원 측에서는 더 이상 어떤 치료방법도 없고 위험한 고비는 넘겼으니 퇴원하라고 했다. 서울 병원으로 가니 받아주지 않았다.
경희의료원으로 옮겼다. 그곳에서는 한

는지 알아야만 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비유품>중에는 화살 맞은 이가 화살을 얼른 빼지 않고 '누가 겨냥했을까?' 등을 물어보다가 숨이 끊어지고 만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난 그때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는 얼마 후, 성철 큰스님 열반소식이 매스컴을 뒀다. 그 당시의 난 큰

박 딸덜 떨면서 기어오르고 있었다. 어느 순간 정상에 올랐다. 올라서자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업고 기어올랐던 그 밧줄을 바라보며 "어휴! 여기를 어떻게 올라왔을까?"라고 말했다.
1996년 동화사 포교당 보현사대구불교대학에 입학했다. 그때에도 나는 몽중 가피가 있어 3-4개월 후에 일어날 일이 보이

고 들리고 있었다. 이때 난 포교사도 포교

하고, 눈을 감아도 기도만 하고 있었다.

혜선이가 눈을 감은지 6개월이 다 되어 갈 무렵, 즉 불교를 공부한지 5년이 조금 지

나 1998년 9월 28일야 그날에도 목말랐던 갈증이 풀렸다.
"아! 그것이구나"란 대답이 되어 돌아왔다.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혜선이가 한없이 보고 싶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이것을 알려고! 이것을 알려고 그렇게도 해매고 해매더라 말인가!"

그 당시엔 어떤 경전을 보든 그것이 모두 이해됐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허전하기만 했다. 그리고 이상했다. 한 바퀴를 돌아 이제 다 알 것 같은데도 뭔가 잡히지 않았다. 단지 알았을 뿐이지 내 것이 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힘이라는 것이 필요했다. 소위 원

대답은 "아니오"였다.

백일동안 아이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런 아이들과 헤어지기 싫었다. 그런데 바로 이를 후 남편이 새벽에 방문을 두드렸다. "이 미친... 네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폭언이 있었다. 그리고는 이층에 계신 아이들 할아버지에게 들렀다가 급근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난 절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다 듣지는 못했다. 기도 도중 '뭔가 있구나. 그 오작하던 시간이 지금이구나' 싶었지만 평소시대로 일을 하고 있었다.

조금 후 성모가 "엄마, 아빠가 이상해. 나 보고 빨리 학교가라"라고 말했다.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 언니는 "집에서 나올 때 혼자 나오지 말고 성모 학교 갈 때 같이 나오나라"고 했다. 그때부터 내 몸과

'아, 그것이구나' 갈증이 풀렸다
그러나 알았을뿐 내것은 아니었고
뭔가를 잡기위한 원력이 필요했다

력이라는 것이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기도가 들어갔다. 얼마 후 남편의 아비한 행위에 질려 언니 집에서 기거 하며 수행에만 매달렸다. 백일 동안의 수정 같은 기도는 '성철큰스님을 감동케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백일 후 꿈속에서 빈 큰스님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다정한 모습으로 말씀 주셨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 백일 동안 난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대구로 와 마땅한 곳이 없어 식당이나 노래방을 찾아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부산으로 돌아와서는 매번 뜨겁게 눈시울만 붉혀곤 했다.

백일이 되는 날 남편의 사과를 받고 아이들 집에 들어간 했지만 말뿐이지 변하지는 않았다. 부부간의 사랑, 정이 없어도 자식의 끈으로 지탱한다는 말이 있듯 나 역시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나의 정진은 잠시도 쉬지 않았다.

집에 들어간 지 6-7개월 후 남편에게서 표현할 수 없는 살기 비슷한 것을 느껴 몸이 오싹했다. 느낌이 좋지 않아 법무소 사무실을 찾았다.

법무소 직원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압류는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혼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나의

마음은 떨리고 있었다.

아이들 할아버지 식사를 하는 중이면서도 모른 척 했다. 새벽에 아들에게서 다 듣고 있었으리라. 'XX병원사람들이 와서 집안이 소란스럽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겁을 쥐서 이제부터 기도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고는 돌려보내겠다"는 것을 말이다.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가는 100m도 안 되는 거리였건만 성모를 학교 보내고 무서워서 택시를 탔다.

그리고 오후부터 떨리는 몸을 이끌고 이혼 소송을 냈다. 그날 밤 친구와 여관방에서 12시에 헤어지고 나서도 난 다시 절을 하며 못다한 기도를 풀면서 마무리 짓고 있었다. 이들이 멀다 하고 후시나 하는 두려움에 여관을 옮겨 다녔다. 몇 번을 그러고 나니 친구가 장기간 투숙할 수 있는 모텔이라며 한 곳을 소개했다.

그곳에서 두달 15일을 거쳐하다가 모 암

자로 공양주 일을 가게 됐다.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정해진 기도를 하느라 틈틈이 없었다. 새벽 5시에 밥을 짓기 때문에 3시에 일어났다. 그곳에 갖지 말포 되는 날이 마침 추석이었다. 그 날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재 지낼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일립을 새벽1시에 맞았다. 두시간을 기도하고 공양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서였다.(계속)



그림 · 문병성

달 정도 지켜보지며 입원을 허락했다. 한 달이 지나자 그곳에서도 별 진전이 없다면 서 퇴원을 종용했다.

집에 오자 아이는 눈도 뜨고 간혹 웃기도 했다. 이때부터 난 아이들 뒷바라지는 뒷전이었다. 기본적인 엄마의 역할만 하고 가까운 서점을 들락거리는데 분주했다.

업, 인과응보 등등 이런 일이 왜 일어났

스님 법어집은 물론 책장만 지키고 있던 깨알 같은 글씨의 책들까지도 불교에 관한건 무조건 읽어삼키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했다. 책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백련암에서 3천배기도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처음에는 아이 둘을 동반하고 백련암에 가서 3천배를 했다. 그 뒤 1년 간격으로 드나들며 3번을 더 했다.

나의 마음은 차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불교의 묘미에 젖어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집 앞 포교당에 들러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하루 천배를 하며 <지장경>을 독송하는 등의 수행생활을 해나갔다.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최하 12시간은 족히 넘었다.

백일기도 중 몽중가피가 있었다. 칼날 같은 바위조각들이 수직으로 치솟은 깊은 산 꼭대기에서 나는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질까

당을 운영할 수 있기에 포교사로서에 응시하여 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나의 하루일과는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것으로 시작했다. 집 지리하면 8시, 혜선이 들보고 집을 300배한 후 2시간동안 기도에 들어간다. 1시간 운동 다녀와서 혜선을 다시 살펴보고 바로 간경기도에 들어간다. 이 시계추 같은 세월이 5년이 다 되어갈 무렵 혜선의 몸 조짐이 이상했다. 등창도 잘 낫지 않았다.

그 상태가 계속 되더니 3-4개월 후 눈을 감았다. 아이가 눈을 감을 당시에도 난 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해매고 있었다. 혜선이 49세 동안에는 5-6시간 계속 앉아 기도만 붙잡고 있었다. 기도 하고 있을 때면 몸에 이상이 오는 느낌이 감지되었건만 '죽으면 죽었지'라는 생각뿐이었다.

이 당시의 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무조건 알아내야만 했다. 그 해탈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아이가 누워 있어도 기도만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살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오.연중 집중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승가건강비법 [마·가·목] 신비의효능"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들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 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마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하여,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장담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문의 전화번호 : (031) 585-1502 자수 대진 입장

간(肝)이 건강하면 영안(眼)이 밝아진다
간(肝)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정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①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한다.
②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황아리에 넣고 왕겨 97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 기름을 묻어낸 뒤 황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한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 걸린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은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천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영이 바뀝니다 명당 육핵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영이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바뀐다면 계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왜인이 사라지고 새로운 운길의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이 옵니다.
이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영이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핵방 051)865-9933**
전도제 49재와 결번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문 명당육핵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육핵어리 특등어리 황금어리 육기막힌 특이틀어리 황금운으로 바뀝니다.